논어 17편 양화 25장 · 원문·풀이

# 子曰：「唯女子與小人爲難養也！近之則不孫，遠之則怨。」

독음 · 자왈 유녀자여소인위난양야 근지즉불손 원지즉원

쉬운 풀이(요약) · 당시 가정과 신분 질서에서 가까이 대하면 불손해지고 멀리하면 원망하는 관계의 어려움을 말한 구절이다. 여성과 하층 사람을 묶어 평가한 표현은 당시의 편견을 담고 있어 오늘날 보편적 판단으로 받아들이기 어렵다.

AI가 원문을 대조해 작성한 학습용 요약입니다. 해석이 갈리는 구절은 다른 풀이도 있습니다.

글자 뜻과 음(대표 훈음 · 문맥별 독음은 위 본문 참고)

子 아들 자 / 曰 가로 왈 / 唯 오직 유 유 / 女 계집 녀 여

與 너울너울할 여 여 / 小 작을 소 소 / 人 사람 인 / 爲 할 위

難 어려울 난 난 / 養 기를 양 양 / 也 어조사 야 / 近 가까울 근 근

之 갈 지 / 則 곧 즉 / 不 아닐 불 / 孫 손자 손 손

遠 멀 원 / 怨 원망할 원 원

저본: 위키문헌 論語 · 편별 고정 판본과 전체 교정 기록은 출처 페이지를 참고하세요.